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2022년 운영 결과 자료집

발행인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배창섭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도서관본부
 편집인 유은경, 이진경, 최영우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도서관운영팀)
 전 화 032-500-2081~3
 이메일 bplibhq@bpc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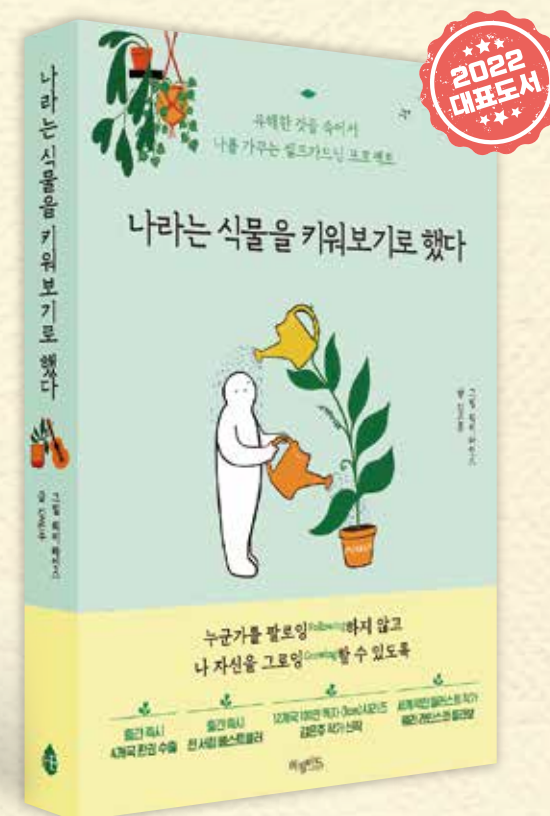


한 권의 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2022년 운영 결과 자료집

부평구립도서관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2022년 운영 결과 자료집

주최 |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 부평구립도서관
 문의 | 도서관운영팀 ☎ 500-2081~3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2022년 운영 결과 자료집

Contents

PART 1. 여는 말

1. 사업소개	6
2. 경과보고	8

PART 2. 주요사업

1.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성	14
2. 대표도서 선정	17
3. 독서릴레이	29
4. 찾아가는 독서토론	36
5. 북멘토(독서토론리더) 운영	38
6.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	40
7. 2022년 「책 읽는 부평」 해안찾기	42
8. 심리학클래스	45
9. 책 읽는 가게	47
10. 시민 독서토론회(통통토론회)	49

PART 3. 주요성과

2022년 「책 읽는 부평」 주요성과	53
----------------------	----

PART 4. 부록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가이드북	57
---------------------------	----

PART 1

여는 말

1. 사업소개
2. 경과보고



1. 사업소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독서문화운동으로 북미에서는 2002년부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국외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산시를 시작으로 전남 순천, 부산, 원주, 청주 등 여러 도시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부평구에서는 2012년 책 문화를 통하여 계층 간, 세대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부평을 열어가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사업의 한 형태로 ‘책 읽는 부평’을 추진하게 되었다.

‘책 읽는 부평’은

책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정서적 일체감을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평구립도서관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범 구민 한 책 읽기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을 읽고 지역주민이 서로 생각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독서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2022년 책 읽는 부평

코로나 앤데믹으로 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가 되며 대면행사가 가능해진 2022년! 3월에 대표도서가 선정되어 독서릴레이는 바로 진행되었으나 독서토론 및 기타 행사는 4월부터 진행되었다.

거리두기가 해제 되었음에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모임이 활발하진 못했다. 하반기인 7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올해의 대표도서인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고 대화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일상에 큰 변화로 인해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 즉,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도서였다.

지친 일상의 회복과 자기 성장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많은 투표수로 부평의 대표도서에 선정되었다. 대표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 치유’에 관한 지역사회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와 연계한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표도서를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읽을 수 있게 진행된 북토크, 인지심리학에 대한 북콘서트와 행복에 대한 명사특강 등 대표도서의 주제인 ‘심리’ 키워드로 독서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도서관의 휴관이 길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줄어 이번 기회에 도서관을 거점으로 ‘심리학클래스’라는 행사를 통해 도서관에서 특강을 열고 다시금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도서관과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독서와 토론이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를 육성하여 지역 내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관내 50개 독서동아리가 책 읽는 부평 사업에 등록하여 토론도서와 활동 공간을 제공받았으며, 신규 독서동아리 결성을 지원하고자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통해 책 읽는 부평의 독서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혼자 즐기는 독서를 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회적 독서문화로 지역에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2. 경과보고

✓ 21년 12월 22일(수) ~ 22년 2월 18일(금) | 대표도서 주민 투표 실시

- ▶ 참여인원 | 20,205명
- ▶ 선정도서 |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김은주 지음, 허밍버드, 2021)

✓ 2월 25일(금) | 사전 토론회 개최

- ▶ 대 상 | 책 읽는 부평 북멘토 30명
- ▶ 내 용 | 후보도서 3종에 대한 대표도서 적합 여부 전문가 대담 및 투표
- ▶ 장 소 | 온라인 줌(Zoom) / 미디어창작공간 나래

✓ 1월~12월 | 책읽는부평 북멘토 운영

- ▶ 대 상 | 2022년 위촉 북멘토 30명
- ▶ 내 용 | 북멘토 후속모임 및 심화토론 활동
- ▶ 장 소 | 온라인 줌(Zoom)/부개도서관 다목적실
- ▶ 참여인원 | 총 12회, 254명

✓ 1월~12월 | 책 읽는 부평 온라인 콘텐츠 운영

- ▶ 책 읽는 부평 사업 관련 영상 및 블로그 콘텐츠 제작
- ▶ 플 랫 폼 | 부평구립도서관 채널(유튜브) & 부평구립도서관 공식 블로그(네이버)
- ▶ 운영건수 | 54건
- ▶ 참여인원 | 총 12회, 254명
- ▶ 조 회 수 | 15,181회(2022년도)

✓ 1월~12월 | 책 읽는 가게 운영

- ▶ 참여기관 | 부평구 관내 가게 <카페 나포렛> 등 8개소
- ▶ 대표도서 전시 및 도서 단체대출 연계
- ▶ 책 읽는 가게 홍보 영상 제작 <카페 나포렛> 등 4건
- ▶ 책 읽는 가게 취재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카페 나포렛> 등 6건

✓ 3월~12월 | 골목골목 찾아가는 책, 독서릴레이 운영

-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내 용 |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2013~2022년) 10종의 독서릴레이
- ▶ 참여인원 | 7,997권 순환 배포, 13,164명 참여

✓ 3월~12월 | 찾아가는 독서토론

- ▶ 대 상 | 독서와 토론에 관심있는 5인 이상 모임
- ▶ 내 용 | 대표도서 가이드북 논제를 활용한 대표도서 중심의 독서토론
- ▶ 참여인원 | 197개 그룹, 3,915명

✓ 4월~12월 | (신규)독서동아리 등록제 운영

- ▶ 대 상 | 20,205명
- ▶ 내 용 |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김은주 지음, 허밍버드, 2021)
- ▶ 참여인원 | 3,393명 (50개 독서동아리 회원 377명, 토론활동 450회)

✓ 4월~6월 |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 ▶ 대 상 | 독서와 토론에 관심있는 주민
- ▶ 내 용 | 독서모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읽고 나누는 방법
- ▶ 장 소 | 온라인 줌(Zoom)
- ▶ 참여인원 | 10회, 368명

✓ 7월 8일(금) | 추진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 ▶ 추진위원 위촉식(11명)
- ▶ 2022년 주요 사업 보고
- ▶ 2022년 사업 진행 각 기관 협조 논의
- ▶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및 위촉장 전달

✓ 5월 19일(목) | T/F팀 구성 및 제1차 회의

- ▶ 2022년 책 읽는 부평 사업 안내 및 운영방안 논의

✓ 6월 22일(수) | 해안찾기 I. 대표도서 공감 북토크 개최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참여인원 | 89명

✓ 6월 23일(목) | 제2차 T/F팀 회의

- ▶ 책 읽는 부평 해안찾기 행사 평가
- ▶ 대표도서 선정 진행 과정 논의

✓ 7월 20일(수) | 심리학클래스(1차) 개최

- ▶ 장 소 | 부개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 ▶ 참여인원 | 91명

✓ 7월 28일(목) | 제3차 T/F팀 회의

- ▶ 책 읽는 부평X문화도시부평 연계사업 심리학클래스 행사 평가
- ▶ 대표도서 선정 및 후보도서 추천 진행 과정 검토

✓ 8월 3일(수) ~ 9월 30일(금) | 2023 대표도서 추천 진행

- ▶ 추천방법 | 온라인 추천
- ▶ 참여인원 | 122명

✓ 8월 18일(목) | 심리학클래스(2차) 개최

-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어울림
- ▶ 참여인원 | 82명

✓ 9월 23일(목) | 해안찾기 II.북콘서트 개최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참여인원 | 105명

✓ 9월 29일(목) | 심리학클래스(3차) 개최

- ▶ 장 소 | 청천도서관 2층 다목적실
- ▶ 참여인원 | 56명

✓ 10월 6일(목) | 제4차 T/F팀 회의

- ▶ 책 읽는 부평 사업 진행현황 확인 및 평가
- ▶ 2023 대표도서 후보도서 검토(1차)

✓ 10월 13일(목) | 제5차 T/F팀 회의

- ▶ 책 읽는 부평 사업 진행현황 확인 및 평가
- ▶ 2023년 후보도서 선정 검토(2차)

✓ 10월 21일(금) | 해안찾기III.명사특강 개최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참여인원 | 110명

✓ 10월 26일(수) | 심리학클래스(4차) 개최

- ▶ 장 소 | 삼산도서관 4층 다목적실
- ▶ 참여인원 | 70명

✓ 10월 27일(목) | 제6차 T/F팀 회의

- ▶ 2023 대표도서 후보도서(3권) 선정(5차)
 - 긴긴밤(루리, 문학동네, 2021)
 - 튜브(손원평, 창비, 2022)
 -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꽃님, 문학동네, 2022)

✓ 11월 24일(목) | 심리학클래스(5차) 개최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참여인원 | 204명

✓ 11월 30일(수) | 보통사람들의 소통을 위한 한 책 토론회 개최

- ▶ 주 제 | “나의 성장을 위한 관계 맺기와 거리두기”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 참여인원 | 20~70대 성인 50명

✓ 12월 1일(목) | 제7차 T/F팀 회의

- ▶ 2023년 대표도서 선정 투표 홍보 방안 논의
- ▶ 2022년 책 읽는 부평 사업평가

✓ 12월 9일(금) | 제2차 추진협의회 개최

- ▶ 2022년 사업 진행 결과 보고
- ▶ 사업평가 및 추진방향 토의
- ▶ 2023년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가중치(10%) 투표

PART 2

주요 사업

1.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성
2. 대표도서 선정
3. 독서릴레이
4. 찾아가는 독서토론
5. 북멘토(독서토론리더) 운영
6.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
7. 2022년 「책 읽는 부평」 해안찾기
8. 심리학클래스
9. 책 읽는 가게
10. 시민 독서토론회(통통토론회)



1.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성

“

『책 읽는 부평』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구립 및 사립 작은 도서관,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부평구 내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는 민·관 거버넌스 사업이다.

”

가. 추진협의회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는 부평구내 지역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자가 함께 모여『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사업에 대한 업무협력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다. 2022년 제1차 추진협의회(2022.07.08.(금))에서는 2022년 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2022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였다. 제2차 추진협의회(2022.12.09.(금))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2023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투표를 진행하여 후보도서(3권)에 대한 가중치 10%를 부여하였다.



✓ 추진협의회 위원 (성명 가나다순)

김송미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부평지회 지회장
문 부	부평구아파트연합회 회장
박병관	온세계교회 장로
박영택	부평구통반장협의회 회장
박정희	북구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이민우	부평구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임성훈	경인일보사 인천본사 경영본부장
장동섭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홍미자	부평도서관 독서문화과장
박기정	부평구청 문화관광과장
배창섭	부평구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나. 실무협의체 T/F팀

지역 내 독서운동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여 2022년 『책 읽는 부평』 사업 진행에 대한 실무를 함께 논의하였다. 올해 T/F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서관련 전문가와 지역서점,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로 1월~4월 사업 보류로 T/F팀 구성 및 제1차 회의(2022.05.19.(목))를 시작으로 총 7차시(2022.12.01.(목))회의가 진행되었다.

✓ T/F팀 위원

외부	박미덕	부평서여중 사서교사
	신정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부평지회 정책부장
내부	석은영	부평구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유은경	도서관운영팀 팀장
	이진경	도서관운영팀 팀원
	최영우	도서관운영팀 팀원
	김예진	부개도서관 팀원
	김미진A	삼산도서관 팀원
	강은숙	부평기적의도서관 팀원
	김이슬	청천도서관 팀원
	안은서	갈산도서관 팀장
	김미진B	부개어린이도서관 팀장



PART 2. 주요사업

2. 대표도서 선정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취지에 맞는 책을 선정하기 위해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평구민의 세대 간,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도서관 외 유관기관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되었다. 대표도서 기준에 부합한 책 선정을 위해 사전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전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가. 대표도서 선정원칙

- ▶ 작가의 국적에 상관없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 (한글로 출판된 도서만 가능)
- ▶ 함께 읽고 토론이 가능한 도서
- ▶ 품절 또는 절판이 아닌 도서

나. 대표도서 선정 추진 과정

21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부평구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도서 추천을 받았다. 총 62권이 추천되어 T/F팀 회의를 거쳐 6권으로 압축되었으며, 12월 8일에 열린 제2차 추진협의회를 통해 최종 후보도서 3권을 선정하였다. 온·오프라인 주민투표와 사전토론회(22.02.25)를 거쳐 총 20,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가 선정(2022.03.03.)되었다.



다. 2022년 『책 읽는 부평』 후보도서 (제목 가나다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김은주 지음 | 허밍버드 | 2021]

식물을 들여다보듯 나라는 존재를 키워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매일매일을 식물에 물을 주듯이 나를 돌보고 가꾸면하나의큰나무가되지않을까? 큰 나무가 되어 다른사람에게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통찰과 공감을 주는 글, 그리고 창의적인 그림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건넨다. 가령,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낭비하기를 권하고, 울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묻고 눈물과 울음을 비워내 다시 마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퍼스널컬러처럼 퍼스널 단어장을 마련해 더 나은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지친 하루 끝에 샤워를 하듯 심리적 샤워를 제안하고, 유명인이 아닌 나 스스로를 인터뷰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 김수아 지음 | 창비 | 2021]

온택트 시대에 급격한 디지털화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온라인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겪는 문제를 살피며 SNS의 현명한 사용, 디지털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공간에서의인간존중,가짜뉴스에속지않는미디어리터러시능력,디지털시민성함양등디지털에연결되어살아가는새시대의시민이될청소년이읽어야할책이다.

이 책이 강조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능력이다. 저자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겪게 되는 문제 상황들을 살피며,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고 SNS를 이용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현명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한편, 좋은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 하지현 | 창비 | 2021]

코로나19 2년 차, 아이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문제를 다루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지현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진료실 풍경에서, 아이들의 마음 발달에 빈틈이 생기고 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부모들에게 시급히 몇 가지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커진 부모의 불안을 섬세하게 분석한 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아이들의 마음 발달, 감정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 뒤 부모 스스로 불안을 다스리면서, 아이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양육자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부모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신뢰를 더한다.

라. 대표도서 선정 방법

온·오프라인 투표

- ▶ 참여기관 | 84개소
 - 온라인 투표소 | 2개소 (홈페이지&네이버폼, 서울 행정 시스템)
 - 도서관 | 18개소 (부평구립도서관 6개소,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작은도서관 10개소)
 - 유관기관 | 46개소 (부평구청, 행정복지센터 22개소, 부평아트센터, 부평역사박물관 등)
 - 작은서점 | 11개소 (부평문고, 씽크빅, 더북스, 사각공간, 쓰는하루 등)
 - 아파트 | 3개소 (산곡우성4차, 삼부한신, 경남4차)
 - 지하철역 | 4개소 (갈산역, 동수역, 백운역, 부평역)



후보도서 사전토론회

책 읽는 부평의 대표도서 선정은 연간 지역주민의 참여와 범위, 참여율, 독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 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후보도서 3종에 대한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결과와 사전토론회에서의 독서전문가들의 대담 및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대중독서운동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표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 일시 | 2022.02.25.(금) 09:00~12:00
- ▶ 장소 | 온라인 줌(Zoom) / 부개도서관 미디어창작공간 나래 촬영
- ▶ 대담 | 박태근 (위즈덤하우스 편집본부장), 이다혜 (‘출근길의 주문’ 작가), 권향란 (북멘토)

주요내용

-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운동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나아갈 방향
- 함께 읽기가 필요한 이유, 함께 읽고 토론하
- 책 읽는 부평 후보도서 3종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한 책 추천
- 대담에 참여한 북멘토 30명의 대표도서 희망 선호도 투표



마. 대표도서 선정 집계 결과 | 총 20,235표 (온·오프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 | 2개소, 1,972표

연번	투표소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총계		759	626	587
1	홈페이지	11	21	7
	네이버 폼	677	579	553
2	서울행정시스템	71	26	27

▼ 오프라인 투표 (스티커 설문조사)

▶ 관내도서관 | 18개소, 6,036표

연번	투표소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총계		2,706	1,664	1,666
1	부개도서관	585	240	507
2	삼산도서관	588	368	297
3	부평기적의도서관	582	430	443
4	청천도서관	311	134	117
5	갈산도서관	167	77	54
6	부개어린이도서관	79	65	38
7	북구도서관	63	41	33
8	부평도서관	170	99	63
9	갈산밀알도서관	30	48	27
10	꿈나무도서관	25	19	5
11	동수도서관	6	3	3
12	산곡글향기도서관	3	3	1
13	희망천도서관	1	1	2
14	꿈땅도서관	51	41	44
15	춤추는달팽이도서관	8	60	9
16	신나는 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1	2	1
17	청개구리도서관	31	28	20
18	두잉청소년도서관	5	5	2

※ 일부 도서관 기관사정으로 인한 휴관.

▶ 부평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23개소, 1,860명

연번	부서명	스티커 설문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합계		855	470	535
1	부평구청1,7층	69	35	25
2	부평1동	52	23	31
3	부평2동	55	34	72
4	부평3동	39	28	40
5	부평4동	25	10	5
6	부평5동	34	6	17
7	부평6동	34	14	18
8	산곡1동	53	29	50
9	산곡2동	37	18	10
10	산곡3동	36	26	16
11	산곡4동	48	38	34
12	청천1동	20	8	10
13	청천2동	22	8	5
14	갈산1동	16	5	4
15	갈산2동	22	21	18
16	삼산1동	71	38	41
17	삼산2동	23	7	11
18	부개1동	28	9	7
19	부개2동	64	27	32
20	부개3동	18	12	7
21	일신동	21	9	17
22	십정1동	58	50	57
23	십정2동	10	15	8

▶ 유관기관 | 23개소, 4,085표

연번	기관명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총계		2,013	1,019	1,053
1	부평구시설관리공단_B	5	2	1
2	부평아트센터	345	52	202
3	부평생활문화센터	342	78	167
4	부평구평생학습관	15	7	5
5	부평구청소년수련관	66	49	63
6	부평역사박물관	42	22	16
7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2	13	14
8	북부교육지원청	17	9	10
9	인천여성가족재단	39	16	47
10	그레다시_A	11	9	6
11	나포레_A	58	41	28
12	늘품학교	17	11	5
13	하늘목장	16	17	6
14	사랑의지역아동센터	6	6	1
15	사랑회지역아동센터	22	8	4
16	온세계교회	54	75	19
17	세움누리의집	6	5	32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_B	9	2	4
19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26	14	14
20	부평구지하상가	772	510	321
21	부평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80	46	49
22	연꽃빌라	28	12	7
23	우리들 안경원	15	15	32

▶ 지하철역 | 4개소, 2,289표

연번	투표소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전체총계		1,016	692	581
1	갈산역	99	51	38
2	동수역	50	32	88
3	부평역	651	497	382
4	백운역	216	112	73

▶ 작은서점 | 11개소, 1,324표

연번	작은서점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총계		610	358	356
1	부평문고	174	109	102
2	더북스	202	80	69
3	미래문고	5	11	16
4	미래서점	74	85	93
5	월드문구서점	37	19	5
6	한국서적	3	7	6
7	사각공간	11	12	10
8	북극서점	38	4	7
9	오묘	36	15	11
10	쓰는하루	7	7	9
11	어울림북앤락	23	9	28

▶ 아파트 | 3개소, 2,639표

연번	투표소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전체총계		1,176	1,013	450
1	산곡 우성 4차	992	892	355
2	삼부한신	26	69	21
3	경남 4차	158	52	74

투표결과 집계표

방법	구분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총합계 20,235명 참여 (온·오프라인 : 20,205명 / 사전토론회 : 30명)				
투표합계		9,135	5,842	5,228
투표비율		45.21%	28.91%	25.87%
사전토론회		4	20	6
사전토론회 비율		13.33%	66.67%	20%
비율 최종합계		38.84%	36.46%	24.70%
현장 투표	도서관	2,706	1,664	1,666
	구청·행정복지센터	855	470	535
	유관기관	2,013	1,019	1,053
	지하철역	1,016	692	581
	작은서점	610	358	356
	아파트	1,176	1,013	450
전자 투표	홈페이지·네이버폼	688	600	560
	서울행정시스템	71	26	27

구분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	안전하게 로그아웃	포스트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도서			
결과	38.84%	36.46%	24.70%

대표도서 선정 평가

약 두 달간의 온라인으로 부평구민들에게 후보도서 62권을 추천 받아 T/F팀 및 독서교육전문가 회의를 통해 6권의 후보도서로 압축하였다. 제2차 추진협의회(21.12.08)를 통해 위원님들의 투표로 최종 후보도서 3권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바이러스와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후보도서의 주제 키워드는 ‘사람, 위로, 미디어리터러시, 팬데믹시대’ 등 일상회복과 사회전반적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투표결과 38.84%를 차지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김은주/허밍버드/2021)가 대표도서로 선정되었다.

책소개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김은주 | 허밍버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창밖 미세먼지와 눈에 먼지 같은 사람, 나를 알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뽀족한 말, 예상치 못한 실수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이 반복되는 나날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힘든 나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돌보고 가꾸듯 진심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다.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인생의 커다란 결심 대신, 매일매일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Self Gardening)’을 시작하자.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통찰과 공감을 주는 글, 그리고 창의적인 그림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건넨다. 가령,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낭비하기를 권하고, 울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묻고 눈물과 울음을 비워내 다시 마음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퍼스널컬러처럼 퍼스널 단어장을 마련해 더 나은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지친 하루 끝에 샤워를 하듯 심리적 샤워를 제안하고, 유명인이 아닌 나 스스로를 인터뷰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로 했다》는 나라를 씨앗을 싹 틔우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총 일곱 가지 스텝에 담았다. ‘Step 1 씨 뿌리기’에서는 나는 어떤 씨앗인지 알아보고 내면의 싹을 틔우고, ‘Step 2 적당한 물 주기’에서는 인생이 버거울 때는 커다란 결정이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을 건넨다. ‘Step 3 시든 잎은 잘라내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Step 4 나비와 벌, 벌과 조우하기’에서는 나의 세계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좋은 관계에 대해 말한다. ‘Step 5 눈물과 미세먼지 닦아내기’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방법을, ‘Step 6 알맞은 계절을 기다리기’에서는 혹독한 계절을 견뎌낸 후에 반드시 불어오는 순풍을 역설하며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 셀프가드닝의 마지막 단계 ‘Step 7 드디어 꽃을 피우기’에서는 타인을 팔로잉(Following)하는 대신 나 자신을 그로잉(Growing)하기를 권하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다.



김은주 | 작가

“

김은주 작가와 워리 라인은 이 책을 읽는
당신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좋은 가드너로서
당신 곁에서 함께한다.

”

PART 2. 주요사업

3. 독서릴레이

독서릴레이는 선정된 한 권의 책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려보기 위한 활동으로 대표도서인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선정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책 구입과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책은 부평구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부평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돌려볼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기관의 경우 기관에서 필요한 수량을 일정 기간 대여하였다. 학교와 연계하여 대표도서와 가이드북, 행사 홍보지를 배포하여 반별, 학년별 돌려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북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간략한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활동지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였다.

또한 기존 회수된 역대 대표도서(2013~2021년)를 활용한 단체대출 및 토론회를 통해 기관 참여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전체 10종의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독자와 토론 연령층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사업기간 | 2022. 4.~ 12.

❖ 사업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사업내용 |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2013~2022년) 함께 읽기

❖ 독서릴레이 진행 방법

- 1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포 이후 대표도서 독서릴레이 시작
- 2 개인신청 : 부평구립도서관,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및 관내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릴레이도서 대출
- 3 단체신청 : 도서관 방문 신청 및 이메일(bplibhq@bpcf.or.kr) 신청
※ 신청서 양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첨부하여 게시
- 4 각 기관별 신청자 명단 취합 후 릴레이주자 등록 및 관리
- 5 선발주자와 책을 전달받은 다음 주자는 책을 읽은 후 후속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북 활동지(셀프가드닝)를 작성
- 6 릴레이 방식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이 책을 돌려 읽고 토론 참여
※ 가족 1인당 1인 대표주자 등록, 가족 구성원 간의 토론문화 확산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가족 독서릴레이 권장
- 7 릴레이가 종료된 대표도서는 부평구립도서관에 반납하여 향후 릴레이 준비

✓ 참여현황 I 총 7997권 배포, 13,164명 참여

독서릴레이 현황	2022년 대표도서	역대 대표도서	총계
배포권수	1,563권	6,434권	7,997권
참여인원	4,823명	8,341명	13,164명

✓ 2022년 대표도서 독서릴레이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총계				1,563	4,823
1	부평구립도서관 (6개관)	3월 30일	부개도서관	18	931
2		3월 30일	삼산도서관	18	
3		3월 30일	부평기적의도서관	18	
4		3월 30일	청천도서관	18	
5		3월 30일	갈산도서관	9	
6		3월 30일	부개어린이도서관	8	
7		3월 30일	전자도서관	1	
8	교육청도서관 (2개관)	3월 30일	북구도서관	3	256
9		3월 30일	부평도서관	3	
10	작은도서관 (14개관)	3월 30일	갈산밀알작은도서관	2	98
11		3월 30일	글마루도서관	17	
12		3월 30일	동수작은도서관	2	
13		3월 30일	산곡글향기작은도서관	2	
14		3월 30일	샘터작은도서관	2	
15		3월 30일	희망천작은도서관	2	
16		3월 30일	곰땅작은도서관	2	
17		3월 30일	늘푸른작은도서관	2	
18		3월 30일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2	
19		3월 30일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2	
20		3월 30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2	
21		3월 30일	춤추는달팽이작은도서관	2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22	작은도서관 (14개관)	3월 30일	해오름작은도서관	2	98
23		3월 30일	꿈나무작은도서관	2	
24	부평구청 (24개소)	3월 30일	부평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구 산하기관 및 북카페	162	1,620
25	학교 (12개교)	3월 31일	부흥중학교	30	30
26		4월 4일	산곡고등학교	25	25
27		4월 8일	부평서중학교	23	105
28		4월 26일	부일여자중학교	245	245
29		4월 29일	부원중학교	80	330
30		5월 13일	부평중학교	47	191
31		6월 3일	부개고등학교	20	20
32		6월 22일	부평서여자중학교	19	19
33		9월 29일	삼산고등학교	10	10
34		10월 28일	명신여자고등학교	331	331
35		12월 13일	산곡남중학교	291	291
36	책 읽는 가게 (10개 점포)	3월 30일	카페 나포렛	1	10
37		3월 30일	카페 듀베리	1	10
38		3월 30일	카페 어울림	1	10
39		3월 30일	CAFE, 그래 다시	1	10
40		3월 30일	LA CASA	1	10
41		3월 30일	쓰는하루	1	10
42		3월 30일	오묘	1	10
43		3월 30일	연꽃빌라	1	10
44		3월 30일	아크커피	1	10
45		3월 30일	은혜치과	1	10
46	유관기관	3월 30일	부평구지역아동센터 33개소	33	66
47		3월 30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	2	10
48		3월 30일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2	10
49		3월 30일	책읽는부평T/F팀	10	10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50	유관기관	3월 30일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	10	10
51		3월 30일	책읽는부평북멘토	30	30
52		5월 18일	부평구청 인사팀	20	60
53		5월 27일	독서동아리(책아띠)	7	8
54		5월 28일	독서동아리(진산중 학부모회)	17	17

2013년~2021년 역대 대표도서(9종) 독서릴레이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총계				6,434	8,341
1	(2013년) 사료를 드립니다	4월 8일	미산초등학교	23	23
2		5월 17일	굴포초등학교 4학년	27	54
3		6월 1일	굴포초등학교 5학년	170	170
4		9월 1일	용마초등학교	100	100
5		9월 6일	부흥초등학교	170	170
6		10월 11일	일신초등학교	79	79
7		12월 7일	동수초등학교	100	100
8	(2014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4월 5일	부마초등학교	30	140
9		4월 8일	미산초등학교	23	23
10		4월 8일	부흥초등학교	170	170
11		4월 19일	일신초등학교	79	79
12		7월 15일	부개초등학교	55	55
13		10월 6일	부광초등학교	23	23
14	(2015년) 블랙아웃	4월 5일	부흥초등학교	100	149
15		4월 8일	부평서중학교	23	105
16		4월 13일	부평중학교	22	44
17		4월 15일	부평동중학교	12	12
18		4월 28일	구산초등학교	110	110
19		5월 3일	갈산초등학교	46	46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20	(2015년) 블랙아웃	5월 17일	굴포초등학교	27	54
21		12월 27일	영선초등학교	150	150
22	(2016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4월 5일	부마초등학교	30	140
23		4월 8일	부흥초등학교	170	170
24		8월 13일	동암초등학교	80	80
25		8월 16일	진산초등학교	45	45
26	(2017년) 푸른 늑대의 파수꾼	4월 8일	산곡남중학교	10	10
27		5월 31일	부개초등학교	51	51
28		8월 23일	부흥초등학교	149	149
29		8월 25일	굴포초등학교	60	178
30		8월 27일	한길초등학교	125	125
31		9월 1일	구산초등학교	110	110
32		9월 19일	부평동중학교	12	12
33		9월 28일	산곡남중학교	300	865
34	(2018년) 평화, 당연히지 않은 이야기	4월 5일	부마초등학교	30	140
35		4월 8일	부평서중학교	23	105
36		4월 26일	부평고등학교	185	185
37		5월 17일	굴포초등학교	27	54
38		5월 20일	한길초등학교	125	125
39		6월 2일	구산초등학교	110	110
40		8월 10일	갈산초등학교	46	46
41		9월 2일	부개초등학교	58	58
42		9월 13일	부흥중학교	30	30
43	(2019년) 푸른 사자 와니니	4월 5일	부마초등학교	30	140
44		4월 8일	미산초등학교	23	23
45		4월 8일	부흥초등학교	155	155
46		5월 1일	부개서초등학교	156	156
47		6월 8일	부곡초등학교	242	242

연번	구분	배포일	참여단체명	배포권수(권)	참여인원(명)
48	(2019년) 푸른 사자 와니니	6월 28일	부평동초등학교	160	160
49		8월 16일	진산초등학교	65	65
50		9월 6일	부흥초등학교	170	170
51		10월 1일	굴포초등학교	170	170
52		10월 6일	부광초등학교	44	44
53		11월 15일	산곡남중학교	6	6
54	(2020년) 페인트	3월 30일	동암초등학교	80	80
55		4월 5일	부마초등학교	30	140
56		4월 8일	부평서중학교	23	105
57		5월 12일	부흥중학교	30	30
58		7월 1일	부평동중학교	50	126
59		8월 16일	진산초등학교	70	70
60		8월 23일	부일중학교	133	133
61		8월 24일	굴포초등학교	200	200
62		10월 1일	구산초등학교	110	110
63		3월 30일	동암초등학교	80	80
64	(2021년) 두 번째 지구는 없다	4월 1일	구산초등학교	110	110
65		4월 8일	부평서중학교	23	105
66		4월 9일	한길초등학교	125	125
67		4월 12일	부곡초등학교	27	27
68		4월 15일	상정고등학교	50	50
69		5월 3일	글마루도서관	15	15
70		8월 23일	부흥초등학교	155	155
71		8월 24일	굴포초등학교 5학년	200	200
72		8월 25일	굴포초등학교 6학년	60	178
73		10월 4일	갈산초등학교	46	46
74		10월 19일	일신초등학교	66	66
75		11월 1일	부곡초등학교	215	215

독서릴레이 평가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는 김은주의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회복과 자기 성장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많은 투표수로 부평의 책에 선정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이 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들을 공유하는 경험들을 통해 성숙한 시민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표도서를 윤독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 치유에 대한 지역사회 담론을 형성하였다.

올해의 대표도서는 성인 대상의 책으로 기존 독서릴레이 사업 참여자 대부분을 차지해온 초·중·고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독서공동체 확대를 위해 관내 5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부평구 독서동아리 50개를 모집, 독서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책 읽는 부평의 대표도서들은 매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지역의 북 큐레이션이며, 대표도서 주제들에는 부평구민만의 공감과 정체성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회수되어 보관 중인 역대 대표도서도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함께 읽고 나누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앞으로도 책 읽는 부평 독서릴레이 '골목골목 찾아가는 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책 읽기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4. 찾아가는 독서토론

책을 읽고 혼자만의 즐거움을 넘어 타인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책 읽는 부평』 사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독서와 토론을 권장하는 지역 분위기 형성을 위해 토론진행자인 북멘토(토론리더)를 파견하여 토론문화를 전파하고, 사업을 홍보하였다. 찾아가는 독서토론 사업을 통해 대표도서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사업기간 | 2022. 4.~ 12.
- ❖ 참여대상 | 부평구 지역주민 (5인 이상 그룹)
- ❖ 내 용 |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2013~2022년) 10종의 독서토론 활동
- ❖ 토론진행 | 책 읽는 부평 북멘토 30명
- ❖ 참여현황 | 총 197개 그룹, 3,915명 참여

독서토론 현황	2022년 대표도서	역대 대표도서	총계
배포권수	71회	126회	197회
참여인원	807명	3,108명	3,915명

❖ 2022년 대표도서 독서토론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연번	구분	기관수(개)	토론그룹(개)	참여자수(명)
1	초등학교	-	-	-
2	중학교	1	1	19
3	고등학교	2	17	351
4	독서동아리	50	50	377
5	부평구청 공직자	1	3	60
총계		54	71	807

❖ 2013년~2021년 역대 대표도서(9종) 독서토론

연번	구분	기관수(개)	토론그룹(개)	참여자수(명)
1	초등학교	11	95	2,276
2	중학교	3	23	648
3	고등학교	1	8	184
총계		15	126	3,108

찾아가는 독서토론 평가

토론을 어렵고 낯설게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에서 양성한 북멘토(토론진행자)를 파견하여 대표도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즐거운 토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올해의 대표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의 셀프가드닝 내용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토론하였으며, 나를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일상을 소중히 가꿀 수 있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다.

찾아가는 독서토론은 주로 초중고교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같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학교의 토론문화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토론사업이 지역 내 확장될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를 모집하였고, 50개 독서동아리 377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대표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주민들의 토론모임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정결과에 따라 토론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부평형 토론모델을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책 읽기와 토론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5. 북멘토(독서토론리더) 운영

2012년부터 양성되어 책 읽는 부평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내 독서토론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북멘토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토론사업을 전개하였다.

2022년 위촉된 북멘토는 30명으로 대표도서 선정 사전토론회, 가이드북 제작, 찾아가는 독서토론 파견, 시민 독서토론회(통통토론회) 진행에 참여하였다.

매월 도서관과의 간담회와 전체 심화토론으로 구성된 후속모임을 진행하여 도서관 정보 공유, 토론리더와 패널로서의 실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였다.

>> 북멘토 후속모임

- ✔ 운영일시 | 2022.01.~12. 매월 3주 금요일 09:30~12:00
- ✔ 운영장소 | 부개도서관 다목적실, 문화아지트 / 온라인(ZOOM)
- ✔ 운영대상 | 2022년 위촉 북멘토 30명
- ✔ 참여현황 | 총 12회, 254명 참여
- ✔ 내 용 | 북멘토 활동 진단 및 자체 독서토론 진행

연번	일정	토론도서 및 활동내용	참여인원(남/여)
1	2022.01.21.(금)	깃털도둑	25 (1/24)
2	2022.02.18.(금)	2022년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후보도서(3권)	29 (1/28)
3	2022.03.18.(금)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28 (1/27)
4	2022.04.15.(금)	지하로부터의 수기	21 (1/20)
5	2022.05.20.(금)	선량한 차별주의자	20 (1/19)
6	2022.06.17.(금)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20 (0/20)
7	2022.07.15.(금)	향수	22 (0/22)
8	2022.08.19.(금)	노인과 바다	17 (0/17)
9	2022.09.16.(금)	거꾸로 읽는 세계사	16 (1/15)
10	2022.10.21.(금)	있지만 없는 아이들	19 (1/18)
11	2022.11.18.(금)	통통토론회 사전 교육	19 (0/19)
12	2022.12.16.(금)	2023년 연간 토론도서 선정 및 간담회	18 (0/18)
총계			254 (7/247)

북멘토(독서토론리더) 운영 평가

책 읽는 부평 북멘토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 명 양성·배출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의 토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2022년 위촉 북멘토 30명은 매월 논제가 있는 심화토론과 기수별(1~7기) 토론을 통해 토론진행자와 패널로의 실전 경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토론모임에 대한 북멘토 자체 만족도 매우 높은 편이다.

후속모임은 거리두기에 상황에 따라 온라인 줌(Zoom)과 오프라인(부평아트센터, 부개도서관)을 병행하였고, 대부분 도서관에서의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한다. 책 읽는 부평 사업 관련 공지사항은 온라인 커뮤니티(BAND)를 수시 활용하였으며, 찾아가는 독서토론 일정, 신청기관의 참여 후기, 진행 사진, 북멘토 선호도 투표, 도서관 행사 등을 긴밀히 공유하였다.

향후 책 읽는 부평 북멘토는 지역의 토론 인재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도서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고자 한다.



6.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

도서관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독서와 토론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내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책 읽는 부평 독서토론 활동의 확장형인 독서동아리 사업은 지역 내 독서모임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부평구 독서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둔다.

자발적 독서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기존 독서모임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동아리를 기획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동아리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독서동아리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율에 동아리 전용의 활동 공간 여부가 영향을 미치므로, 연간 안정적인 모임 공간(도서관 문화아지트)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모임이 활발이 이루어졌다.

>> 독서동아리 등록제

- ✔ 지원기간 | 2022. 4.~ 12.
- ✔ 지원대상 | 부평구 지역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 독서동아리
- ✔ 지원내용 | 토론포서 및 활동공간 지원,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제공
- ✔ 참여현황 | 50개 독서동아리, 3,393명 참여

독서동아리 등록	독서동아리 회원	토론회차	토론인원수
50개	377명	450회	3,393명

>>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 ✔ 교육일시 | 2022.04.~06. 매주 금요일 10:00~12:00
- ✔ 교육장소 | 온라인(ZOOM)
- ✔ 교육대상 | 독서모임이 처음이거나 독서동아리 운영을 준비 중인 주민
- ✔ 교육내용 | 독서모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읽고 나누는 법
- ✔ 교육강사 | 이다해 (씨네21 편집팀장, '출근길의 주문' 작가)
- ✔ 참여현황 | 총 10회, 368명 참여

독서동아리 육성사업 운영 평가

북멘토 주도의 독서토론, 초중고교에 집중되었던 기존 토론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도서관과 직장, 가정 등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독서공동체 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였다.

신규 동아리 결성을 지원하고자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을 실시, 함께 읽고 나누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며 실제 운영 중인 독서모임들의 활동 사례와 실질적인 동아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의 등록 신청도 많았지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동아리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아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이 관내 동아리 형성의 촉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활동 후기를 통해 독서동아리 회원들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경험을 교류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독서모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화한 주민들이 주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북멘토가 토론리더로서 독서공동체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 읽는 부평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회원 300여명은 2023년 대표도서 추천 및 선정 투표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도 분석을 통해 협의체 구성 등 조직적인 모임으로 발전될 가능성 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펼치는 책 읽는 부평의 독서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혼자서 즐기는 독서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회적 독서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 책읽는부평 독서동아리 <나독너독>



▶ 책읽는부평 독서동아리 <그림책상상>

7. 2022년 「책 읽는 부평」 해안찾기

해안찾기 행사는 대표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주제인 심리에 대해 '대표도서 공감 북토크', '북콘서트', '명사특강' 순서로 행사를 개최하여 책 읽는 부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 해안찾기 I. 대표도서 공감 북토크 <나라는 꽃을 피우다>

- ✓ 일 시 | 2022.06.22.(수) 16:00~17:30
- ✓ 대 상 | 지역주민 89명(대면행사)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북 토크 | 박태근(위즈덤하우스 편집본부장), 임유정(라온제나 대표)
- ✓ 축하공연 | 차소연(싱어송라이터)
- ✓ 내 용 |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제별 공감 북토크 진행 및 북-OST 가수 공연



>> 해안찾기 II. 북콘서트 <뇌가 마음을 만든다>

- ✓ 일 시 | 2022.09.23.(금) 16:00~17:30
- ✓ 대 상 | 지역주민 105명(대면행사)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북 토크 | 한소원(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허희(문학평론가)
- ✓ 축하공연 | 세투아(세미클래식 앙상블팀)
- ✓ 내 용 | '변화하는 뇌' 저자 한소원교수의 인지심리학 강연



>> 해안찾기 III. 명사특강 <행복의 진짜 얼굴>

- ✓ 일 시 | 2022.10.21.(금) 16:00~17:30
- ✓ 대 상 | 지역주민 110명(대면행사)
-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 강 연 | 서은국(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 내 용 | '행복의 기원' 저자 서은국 교수의 특별강연



헤안찾기 평가

22년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인해 헤안찾기 행사는 대면행사로 전환되었다. 6월에 진행된 북토크는 50%가 노쇼가 생겼으며, 9월에 진행된 북콘서트는 40%의 노쇼, 그리고 10월에 진행된 명사특강은 30%의 노쇼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첫 6월 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는 되었지만 2년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행사 참여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토크의 행사는 작가의 개인사유로 인해 참여를 하지못하였지만 알라딘 인문MD를 거쳐 위즈덤하우스에서 편집본부장으로 계시는 박태근님을 초빙하여 대표도서를 더 쉽게 읽기 위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북토크로 책에 대해 풀어주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인 북콘서트와 명사특강은 대표도서 주제와 관련하여 서울대 심리학과 한소원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교수를 초빙하여 인지심리와 진짜 행복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연계적으로 진행된 행사라 처음 참여하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헤안찾기 행사 만족도는 평균 95.86%가 만족한다고 대답해주었으며, 95.93%의 참여자가 지역독서 문화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외에 참가비 무료와 오프라인 행사라 좋았다고 대답해주어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PART 2. 주요사업

8. 심리학클래스

건강한 나를 찾는 문화도시부평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일상회복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문화도시부평과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2022년「책 읽는 부평」대표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의 '심리'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심리학강연이 기획되었다.

- ❖ 일 시 | 2022년 7월 ~ 11월
- ❖ 대 상 | 지역주민 503명(대면행사)
- ❖ 장 소 | 도서관 및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날짜	강연 주제	강연자	장소
7/20(수) 오후7시	▶ 불안한 사회, 나를 찾아서 :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곽금주 교수 (서울대학교)	부개도서관
8/18(목) 오후7시	▶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 자살도 예방이 되나요?	백종우 교수 (경희대학교)	부평기적의도서관
9/29(목) 오후7시	▶ 아주 보통의 행복 :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이지연 교수 (인천대학교)	청천도서관
10/26(수) 오후7시	▶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 나를 아끼면 과거도 변한다	한성열 교수 (고려대학교)	삼산도서관
11/24(목) 오후7시	▶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 현대사회가 알아야 할 범죄심리	박지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달누리극장

❖ 심리학클래스 일정

심리학클래스 <책읽는부평X문화도시부평>

7/20(수) 부개도서관 오후7시	8/18(목) 부평기적의도서관 오후7시	9/29(목) 청천도서관 오후7시	10/26(수) 삼산도서관 오후7시	11/24(목) 달누리극장 오후7시
				
곽금주	백종우	이지연	한성열	박지선

심리학클래스 평가

5월부터 기획된 심리학클래스는 문화도시부평과 협업을 진행한 사업이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올해 대표도서 '심리'를 주제로 정하여 기획되었다. 저명한 심리학자를 초빙하여 5가지 주제(사회심리, 관계심리, 인간심리, 나의심리, 범죄심리)로 7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로 진행되었다. 부개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아트센터 순서로 심리학 시리즈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전용 노트세트를 참여자에게 배부하여 첫 회차 참여자가 마지막 회차 강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획되었다. 강연 시작 전 책 읽는 부평 홍보 영상을 재생하여 참여자가 책 읽는 부평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강연자와의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며 대표도서의 주제와 잘 연계된 프로그램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거점인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리두기 해제 상황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방문률을 높였으며, 20년부터 21년도까지 잦은 휴관으로 인해 문화에 대한 갈증이 높았던 지역민들에게 많은 해소가 되어주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PART 2. 주요사업

9. 책 읽는 가게

바쁜 일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책 읽는 가게는 도서관과 함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지역 가게 8개소를 선정하여 부개도서관 단체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책 읽는 가게 홍보 영상제작 및 취재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 운영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참여가게 | 8개

연번	상호명	업종	주소	참여연도
1	카페 나포렛	카페	인천 부평구 영성서로 31	2019년
2	카페 어울림	카페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	2019년
3	LA CASA	카페	인천 부평구 수변로 43	2021년
4	쓰는하루	출판스튜디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	2021년
5	그림책방오묘	서점&북카페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84	2021년
6	연꽃빌라	서점&북카페	인천 부평구 길주로547번길 8-12	2021년
7	은혜치과	치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74	2021년
8	카페 168	커뮤니티 카페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2022년

✔ 운영 사항

- ▶ 영상 콘텐츠 제작 | 시범적으로 가게 4곳을 선정하여 홍보 영상 제작
(부평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 영상 공개)
- ▶ 취재 콘텐츠 제작 | 시범적으로 가게 6곳을 선정하여 취재활동을 통한 홍보용 블로그 콘텐츠 제작
- ▶ 도서 단체 대출 연계 | 부개도서관(책나들이) 연계하여 가게 내 비치
- ▶ 대표도서 전시 및 홍보물 | 2022년 시범적으로 4곳을 선정하여 홍보 영상 제작

10. 시민 독서토론회(통통토론회)

통통토론회는 '보통 사람들의 소통을 위한 한 책 토론회'의 약자로 한 해 동안 함께 읽고 나눈 대표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모여 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이다.

'나의 성장을 위한 관계 맺기와 거리두기'라는 대주제 아래 전체토론과 소그룹 토론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둠 토론 시 북멘토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패널로도 참여하여 토론의 완성도를 높였다.

- ✔ 운영일시 | 2022.11.30.(수) 10:00~12:00
- ✔ 운영장소 |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 참여현황 | 20~70대 성인 50명 (6개 조, 조별인원 8~9명)
- ✔ 운영내용 |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한 대표도서 깊이 읽기
- ✔ 진행 | 서미경 (한국독서연구연구소장), 북멘토
- ✔ 토론논제 | "누군가를 팔로잉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로잉 할 수 있도록"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원한 관계와 유해한 말로 둘러싸인 일상에 '나'를 돌보는 셀프가드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물을 가꾸듯 '나'에게 씨 뿌리기, 물 주기, 먼지 닦아주기, 시든 잎을 따기, 알맞은 계절을 기다리면 벌과 나비를 만나 꽃을 피우는 자기성장의 실천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이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p.45~46)

2 [나와 관계 맺기 & 방해꾼]

나의 성장(그로잉)을 위해 내 몸과 기분, 사용하는 단어, 먹는 음식, 소비 스타일, 자주 가는 장소와 자주 듣는 음악, 책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점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성장을 위해 어느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나를 인터뷰하다' 리스트 (p.95)

- 셀프가드닝 1 : 지난 일주일 간 내가 먹은 음식들의 기록 (p.21)
- 셀프가드닝 2 : 아침의 기록, 오늘 아침에 처음 든 생각, 기분은 어떠했나요? (p.27)
- 셀프가드닝 3 : 나만의 장소 지도 만들기, 내가 자주 가는 장소, 편안한 장소, 떠나고 싶은 장소 지도를 통해 몰랐던 나를 알기 (p.36)
- 셀프가드닝 4 : 기분 기록, 나의 기분을 글이든 그림이든 기록해보세요 (p.42)
- 셀프가드닝 5 :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한 생활 속 가드닝 (p.49)
- 셀프가드닝 6 : 나의 소비 일기 (p.78)



▶ 카페 나포렛 홍보 영상 제작



▶ 그림책방오묘 홍보 영상 제작



▶ 책 읽는 가게 취재 콘텐츠 제작

책 읽는 가게 평가

책 읽는 가게는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내 위치한 가게로 접근성이 높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의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와 함께 가게 주 고객층의 관심을 유도할 책을 선별하고 북큐레이션 도서와 함께 사업홍보를 위한 영상제작을 진행하였다. 이는 열린공간을 활용한 도서관의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하는 장치이자, 독서공간 확장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시민들의 온라인 검색률이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해당 책 읽는 가게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책 읽는 부평」 사업 이미지를 알렸다. 지역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내 가게와 상생하는 사회적 협력기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 셀프가드닝 7 : 퍼스널 단어장, 내가 쓰는 단어 (p.89)
- 셀프가드닝 8 : 나만의 완벽한 순간 시럽 리스트(음악, 옷, 책, 드라마) (p.94)
- 셀프가드닝 10 : 독서라는 셀프가드닝 (p.101)

3 책에서 제안하는 내 몸과 기분을 점검하고, 다양한 내 모습을 찾고, 인정하기 등의 실천법을 모두 나 자신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나르시즘이라는 프리즘'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체하지 않을 나의 팬클럽이 되라는 것인데요. 현재 생활에서 자신을 나르시즘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실천 가능성을 이야기 해주세요. (p.59)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셀프가드닝을 실행하고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일까요? (p.66, p.74, p.80, p.102, p.254, p.260~261)

4 [타인과 마음의 안전거리두기]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위한 좋은 관계는 오프라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텍스트에서 오는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타인과의 관계는 아날로그적으로 하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나요? (p.163~164, p.201~202)

5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마음의 안전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을 거리인 여유와 이해, 인정의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관계 맺기에서 '마음의 안전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 듯 쓸모없는 타인의 말들을 버리면 정리된 방처럼 마음도 삶도 정결해질 수 있다.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것들로만 채울 수 있다. (p.112)
- 질문 받지 않을 권리, 질문만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p.132~133)
- 판단, 누군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쉽게 분류하거나 묶어버리지 말자. (p.140)
- 말하기와 듣기의 밸런스는 곧 관계의 밸런스이다. 듣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만든다. (p.156)
- 관계의 가장 큰 적은 어떤 사소하거나 큰 사건, 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각색하는 편집자, 우리 자신의 시선일 수도 있다. (p.161)
- 예상 밖의 말과 행동이 돌아왔을 때 그를 단번에 관계 밖으로 밀치지 않을 여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가 아닌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 그가 부족해서가 아닌 나의 기대가 컸을 수도 있으며, 나의 기준과 그의 기준은 다름에 대한 인정. (p.175)
- 때로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자. 적절한 때의 적절한 말과 침묵처럼 관계를 아름답게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p.183)

통통토론회 평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접촉 감소 등으로 지역 내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 환경에서의 돌발상황을 대처하고, 전체토론과 소그룹 모둠토론 진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북멘토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토론회 리허설 기회로 삼았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 진행된 대면 독서토론회로 감염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6개 모둠끼리의 거리가 가까워 조별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어 아쉬웠다.

시민 독서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만남과 정서 표현,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다수의 참여자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읽고 나누는 대중독서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PART 3 주요성과

PART 3. 주요성과

2022년 「책 읽는 부평」 주요 성과

1.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

올해는 도서관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독서와 토론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육성하였다. 기존 초중고교에 집중되었던 토론 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도서관과 직장, 가정 등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자발적인 독서커뮤니티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펼치는 책 읽는 부평의 독서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혼자 즐기는 독서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회적 독서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2. 2022년 「책 읽는 부평」 해안찾기 사업

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가 가능해져 해안찾기 행사는 모두 대면으로 전환하여 기획되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남아 있어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억눌린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의 포문이 되어 책 읽는 부평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 되었다.

✓ 2022년 대표도서 김은주 작가 인터뷰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해안찾기 I. 대표도서 공감 북토크 : 나라는 꽃을 피우다 행사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해안찾기Ⅱ. 북콘서트 - 뇌가 마음을 만든다 행사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해안찾기Ⅲ. 명사특강 - 행복의 진짜 얼굴 행사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책 읽는 가게 <카페 나포렛>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책 읽는 가게 <그림책방 오묘>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3. 2022년 책 읽는 부평·문화도시부평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 심리학클래스 사업

심리학클래스는 책 읽는 부평과 문화도시부평의 협업사업으로 기획 및 진행되었다. 2022년 대표도서 주제와 관련한 심리학 강연으로 기획되어 건강한 나를 찾고 코로나로 지친 일상회복을 제공하였다.

❖ 문화도시부평 협업사업「심리학클래스」행사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책 읽는 가게 <카페 어울림>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 책 읽는 가게 <연꽃빌라> 영상



QR코드 영상보기

4. 2022년「책 읽는 부평」책 읽는 가게 사업 영상

2019년부터 시작된 '책 읽는 가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온라인 및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 시대에 맞춰 영상 제작 진행하였으며 전달력 있는 사업 홍보가 될 수 있었다.

PART 4 부록

부록 | 2022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가이드북



책으로 행복한 도시, 책 읽는 부평

2022년 대표도서 가이드북

주최 |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 부평구립도서관
 문의 | 도서관운영팀 ☎ 032-500-2081~3



만약, 49만 부평구민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 낸시 펄(Nancy Pearl)의 ‘만약 시애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에서 시작된 후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통합을 이루어 낸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되어 서산시에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시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은 2012년 부평구에서 ‘책 읽는 부평’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같은 책을 읽고 나누며,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간의 정서적 일체감과 부평만의 지역 정체성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는 매년 지역주민에 의해 선정됩니다. 2021년 10월까지 독서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총 62권을 추천받았으며, 책읽는부평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3권의 후보도서로 압축했습니다.

이후 주민투표와, 투표기간 중 실시된 주민토론회 결과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김은주 지음, 허밍버드, 2021)’가 부평구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도서 소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1cm 시리즈’로 잘 알려진 김은주 작가와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워리 라인스(Worry Lines)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서정적인 언어로 삶의 통찰과 공감을 주는 글과 그림을 통해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방식의 위로를 건넵니다.



글 | 김은주

한국 최초로 프랑스에서 몽골까지, 유럽, 아시아 12개국 1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1cm 시리즈>를 펴냈다. 스투키를 말려 죽인 경험도 있고, 선인장 가시처럼 마음이 매마른 날도 있지만 서툰 실수와 인생의 경험들로 진정한 가드너가 되는 법을 깨닫고 있다. 10년 이상 제일기획, TBWA, 오버맨의 카피라이터로 일했고, 책과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를 위한 ‘더 나은 일상’의 가드너가 되고 있다.

그림 | 워리 라인스

유럽과 미국, 호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성별, 인종, 나이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심플한 라인과 채색으로 그려낸 통찰력 있는 그림으로 65만 세계 팔로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저서로 『This book is for you』(2021년 9월 출간)가 있다. 한국을 사랑하며, 코로나 이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게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이다. 김은주 작가에게 영감을 주어 이번 콜라보를 함께하게 되었다.

오늘은 나를 가드닝합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 창밖 미세먼지와 눈에 먼지 같은 사람, 나를 알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뻘쭙한 말, 예상치 못한 실수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이 반복되는 나날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힘든 나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돌보고 가꾸듯 진심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입니다.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인생의 커다란 결심 대신, 매일매일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Self Gardening)'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가이드북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가드닝할 수 있는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10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더 나은 모습의 나를 싹 틔울 준비를 도와줄 질문들입니다. 답을 모두 작성한다면 한 권의 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셀프가드닝 프로젝트가 있다면 태그(#책읽는부평 #셀프가드닝프로젝트)를 달아 SNS에 공유해보세요. 때로는 혼자만의 결심보다 공유하고 공표하는 것이 그것을 지속해나갈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프로젝트 공유를 통해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일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볼 수 있고,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르고 고유한 모양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 더 나은 모습의 나와 우리를 만날수록 이 세상 또한 조금 더 나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책 읽는 부평 올해의 책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를 함께 읽고, 가드닝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분명 그동안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조금 더 나은 나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책읽는부평 대표도서 전자책으로 만나기

부평구립 통합도서관(www.bppl.or.kr) > 전자도서관 > 구독형 전자책 > 대출 (로그인 필요)



01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식물의 힘

프랑스 전설적인 요리사 장 앙텔름 브리야 사바랭은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죠"라고 말했다. 내가 먹은 것들은 나의 몸과 정신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몸과 마음에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을까? 요즘 부쩍 기분이 안 좋고 쉽게 피로해졌다면 당신이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일주일간 나의 식단을 적어보고 나에게 나쁜 식단을 상쾌한 기분의 나, 좋은 컨디션의 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선한 식단으로 바꾸어보자. 방울토마토 몇 개, 견과류 몇 알 또는 조금 더 많은 수분 섭취부터 시작해도 좋다. 결심한 식단으로 100% 바꿀 수는 없어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내가 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성취감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 지난 일주일간 내가 먹은 음식들의 기록(놓치지 말 것) '지금까지의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나의 식단에서 빼거나 추가하고 싶은 음식들의 기록 '지금부터의 식단'

· 빼거나 줄여야 할 음식

· 부족해서 넣어야 할 영양소나 음식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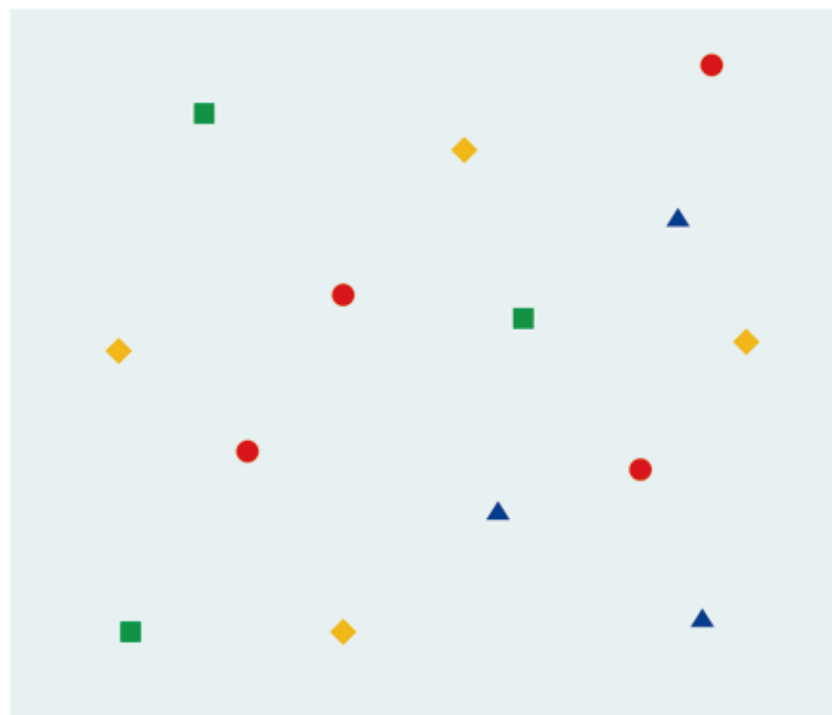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나만의 장소 지도 만들기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 내가 벗어나고 싶은 장소는 ▲, 내가 언젠가 떠나고 싶은 장소는 ■ 옆에 적어보자.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나만의 짧은 코멘트도 달아보자. 요즘 나의 욕망, 결핍, 취미 등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의외의 내 모습,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 지금 내게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것, 요즘 기쁘거나 힘든 이유, 바꾸고픈 혹은 바라는 내 모습 등, 나에 대해 몰랐던 여러 가지를 나만의 장소 지도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

- 자주 가는 장소 ◆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 벗어나고 싶은 장소 ■ 언젠가 떠나고 싶은 장소



6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03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기분 기록

습관처럼 혹은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너무 배려하느라 지쳤다면 나에게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나의 기분을 들여다보고 기록해보자. 기록은 어떤 형식이어도 좋다. 글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다. 글이라면 짧은 문장이나 떠오르는 노랫말도 좋다. 그림이라면 사실화여도 추상화여도, 단순한 낙서여도 좋다. 일기를 쓰면 하루가 정리되듯 기분을 기록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나의 기분은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그로 인해 무겁고 부정적인 기분은 해소되고 좀 더 가벼운 기분의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ATE.

PM/AM.



Smile



Angry



SoSo



Bad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7

04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한 생활 속 가드닝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 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셀프가드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기, 마스크팩 자주 하기, 걷기나 근력 운동하기, 하루 한 알 토마토 챙기기, 짜고 매운 것 덜 먹고 물 많이 마시기,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챙겨 먹기, 야식 줄이기, 화 덜 내기, 명상하기...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멈추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한 일상 속 셀프가드닝을 지속해 나가자. 특별하지 않아도 꾸준히 좋은 나만의 셀프가드닝 비법들을 적어보자. 바쁜 일상 때문에 가드닝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셀프가드닝 01

.....

.....

.....

셀프가드닝 02

.....

.....

.....

셀프가드닝 03

.....

.....

.....

셀프가드닝 04

.....

.....

.....

8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05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 톱툰이 시간 플렉스Flex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세요. 사소한 일, 생산성 없는 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일수록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톱툰이 혹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잊는 사실, 시간의 여백은 여백으로 남겨도 됩니다.

- ▶ 재료 톱툰이 (또는 충분한 시간)
- ▶ 방법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일 리스트
(낭비 후에는 체크해주세요)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9

06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주체적인 나만의 인생 주제 노트

요즘 나의 주제는 무엇인지, 인생 주제 노트를 작성해보자. 시간을 단위로 살아가면 어제, 오늘, 내일, 몇 시, 몇 분에 끌려 다니다 정작 중요한 일들을 잊거나 빠뜨리게 되지만 나의 주제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체인 일상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놓치면 안 되는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 관계, 습관, 사랑, 취미 등 내가 요즘 관심을 갖는 주제를 챗터별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 실천 방법을 소주제에 적어보자. 이것은 지나칠 수 있는 나자신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 적는 기록이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기록해보자.

예) 챗터 1. 취미

소주제 1-1. 색연필 인물화

: 요즘 새롭게 관심 가지기 시작한 색연필 인물화 온라인 클래스 신청하기

챗터 1.

챗터 2.

챗터 3.

챗터 4.

챗터 5.

10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07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독서라는 셀프가드닝

시간과 장소를 넘나드는 가장 쉽고 간단한 셀프가드닝, 독서. 주제별 나의 독서 리스트들을 완성하고 나의 책 취향을 발견해보자.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자. 나의 리스트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도, 다른 사람의 리스트로부터 나의 인생 책을 발견할 수도 있는 일이다.

현재 나의 관심사, 고민, 취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나의 취향과 기대가 드러나는 '위시리스트 책'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나만 알기에 아까운 책'

책장에서 꺼내 다시 읽기 시작한 그때 그 시절 '역주행 책'

나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추천하고 싶은 책'

또 다른 나의 인생 책이 될 수도 있을 '추천받은 책'

#책읽는부평 #나라는식물을키워보기로했다 #셀프가드닝프로젝트

11

나의 시를 다시 쓰자_Re-poem

유해한 말로 이루어진 이 페이지를 나만의 시와 그림으로 재탄생시켜보자.
그리고 현실에서 종종 마주치는 유해한 실전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적용
해보자.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예술가가 존재한다.

보잘것없는 너에게

나쁜 꿈을 꾸고 있다. 너는 축축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 겨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달은 희뿌옇게 빛나고 늑대 여러 놈이 너를 잡아먹기 위해 뿔고 길게
찢어진 입을 벌린 채 내려다 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은 없고, 너는 망연자실하다.
희망, 절망의 카드 중 너는, 너에게 익숙한 카드를 주저 없이 고른다. 그 카드의
뒷면을 본다. 여러 가지 말들이 적혀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편의점의
영수증처럼 구겨져 버려질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는 실수투성이,
현재는 무기력함, 내일? 내일은 그저 나쁜 오늘의 반복이겠지. 그냥 이 구덩이에
빠져 있듯 수동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면 돼. 그게 너에게 가장 잘 어울려. 시간이
없다고? 맞아, 아주 멋진 사실처럼 보이는 핑계거리지. 또한 네가 결코 네 삶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야. 시간은 언제나 부족해. 네가 80년 긴 인생을
살더라도 너의 하루는 늘 시간이 부족한 아이러니에 시달릴 거야. 너의 잠재력을
믿는다고? 훗. 잠재력과 능력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신의 선물이야.
그리고 신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아. 혹시 모르니 일단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봐. 그래, 그냥 기다리라고, 지금 네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때마침
나는 천둥소리보다 비슷한 어떤 외부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지만
천둥처럼 저 멀리서 또한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기도 한다.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축축하고 깊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가위에 놀랐을 때 깨어나기 위해 취하는 동작처럼, 마침내 가까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나는 과연 이 나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떤 대답이 나의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 순간 내 손을 무겁게, 그러나 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좋아하는 것들 리스트, 쇼핑 리스트 혹은 배달 맛집, 먹고 싶은 메뉴 리스트,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 리스트 등 어떤 주제의 리스트든 열어놓고 작성해보자. 쉽게 접하거나 구할 수 있지만 기분을 달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일수록 좋다. 단, 너무 값비싸 욕망과 죄책감의 무게가 더해지는 품목은 이 순간 지양하도록 하자.

리스트

- 1.
- 2.
- 3.
- 4.
- 5.
- 6.

리스트

- 1.
- 2.
- 3.
- 4.
- 5.
- 6.

리스트

- | | |
|----|----|
| 1. | 4. |
| 2. | 5. |
| 3. | 6. |
| | 7. |

나의 가능성을 잘 아는 증인, 바로 나의 증언들

학창 시절 받았던 상장이 언제 사라진 줄도 모르는 것처럼 누구도 내가 잘했던 일들에 대해 따로 기록해두지 않는다. 그런 아깝고 소중한 순간들이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한다. 당신이 잘해왔던 그 일들이, 마음에 드는 당신의 그 모습들이 당신이 힘든 시기, 슬럼프에 빠진 시기,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풀이 죽은 시기에 크고 작은 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페이지에 꽤 괜찮은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멋진 모습, 어려움을 이겨낸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해두자. 이 증언들은 나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용기와 자존감을 북돋워줄 것이다. 잠깐 위축된 어깨를 다시 당당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인지는 관계없다. 어릴 적부터 바로 오늘까지 당신이 기억하는 크고 작은 괜찮은 모습들을 증언하면 된다.

증언 1.

증언 2.

증언 3.

증언 4.

증언 5.



「책 읽는 부평」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부평의 한 책**
만날 수 있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

① 부개도서관

부평구 부일로83번길 46 (부개동) ☎ 032) 505-0062~5

② 삼산도서관

부평구 부평북로 445 (삼산동) ☎ 032) 330-7012~4

③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구 길주남로 166 (부개동) ☎ 032) 505-0612~3

④ 청천도서관

부평구 원길로 23 (청천동) ☎ 032) 330-9171~3

⑤ 갈산도서관

부평구 주부도로 254 (갈산동) ☎ 032) 362-0261~2

⑥ 부개어린이도서관

부평구 동수로 166 (부개동) ☎ 032) 505-1131~2

[북구도서관]

부평구 신탁리로 21 (부평동) ☎ 032) 363-5000

[부평도서관]

부평구 경원대로 1191 (십정동) ☎ 032) 510-7300



부평구립도서관

<https://www.bppl.or.kr>

문의 | 도서관운영팀 ☎ 032-500-2081~3

부평구 작은도서관

갈산말알도서관

부평구 주부도로 173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8627

글마루도서관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1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8883

꿈나무작은도서관

부평구 부흥로173번길 68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7894

동수작은도서관

부평구 동수북로 166번길 20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8884

산곡글향기도서관

부평구 마장로 319번길 52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8625

샘터작은도서관

부평구 중앙산로33번길 6-7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 032) 509-8620

희망천작은도서관

부평구 경안로834번길 8 (부평동 희망천경로당 2층) ☎ 032) 509-8623

꿈땅도서관

부평구 경안로 996, 미래센터 4층 (부평동) ☎ 070-7878-6026

늘푸른도서관

부평구 경원대로 1418번길 13 (부평동, 부평중부중합사회복지관 4층) ☎ 032) 528-4020

충추는달팽이도서관

부평구 경안로749, 신명빌딩 2층 (십정동) ☎ 032) 521-3763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알라

부평구 후정동로 60, 3층 (삼산동) ☎ 032) 521-3763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부평구 화랑북로 15-3(산곡동) ☎ 032) 521-2040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부평구 마장로 35 시일당빌딩 5층 (십정동) ☎ 070-8247-3669

해오름작은도서관

부평구 새월천로 21, 3층 (산곡동) ☎ 032) 207-5395